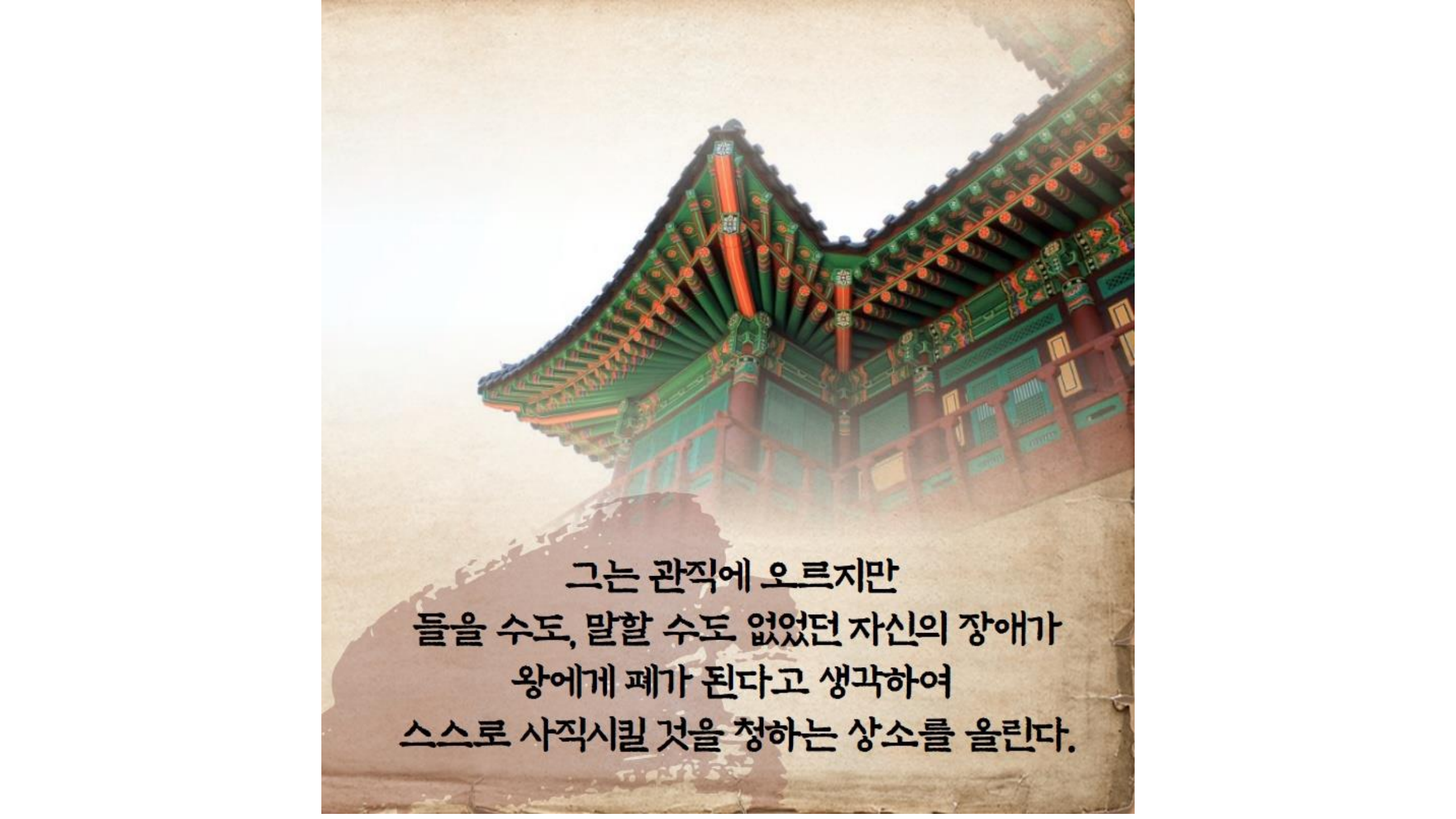


“전하, 소인을
사직시켜주시옵소서”





때는 바야흐로 영조 10년(1734),
8살 때 열병을 심하게 앓은 후로
청각장애를 갖게 된 도승지 이덕수(李德壽).



그는 관직에 오르지만
들을 수도, 말할 수도 없었던 자신의 장애가
왕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여
스스로 사직시킬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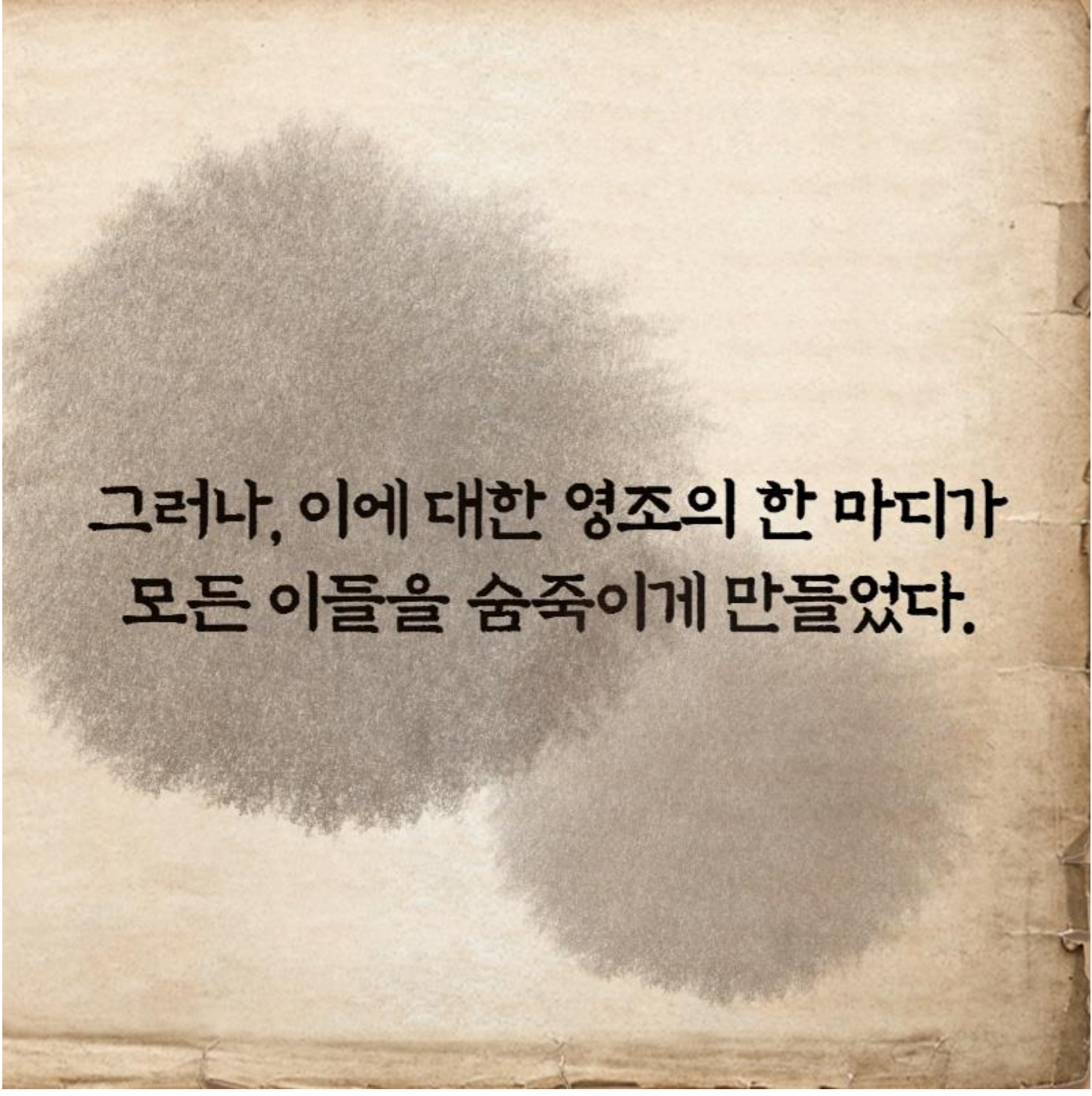


하지만 영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
도리어 1738년, 신임이 두터웠던 그를
청나라 외교특사로 임명한다.



그러나 이를 편견의 시선으로 본 다른 신료들은
그가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
심한 반발을 일으킨다.

"동지정사(冬至正使) 이덕수(李德壽)는
문학과 지조에 있어서 비록 당세에 제일가지만,
외교사절로는 적임이 아닐 듯 하옵니다.
(귀가 어두워) 돌발발언이 튀어나오면 어쩍니까?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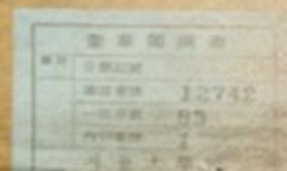
그러나, 이에 대한 영조의 한 마디가
모든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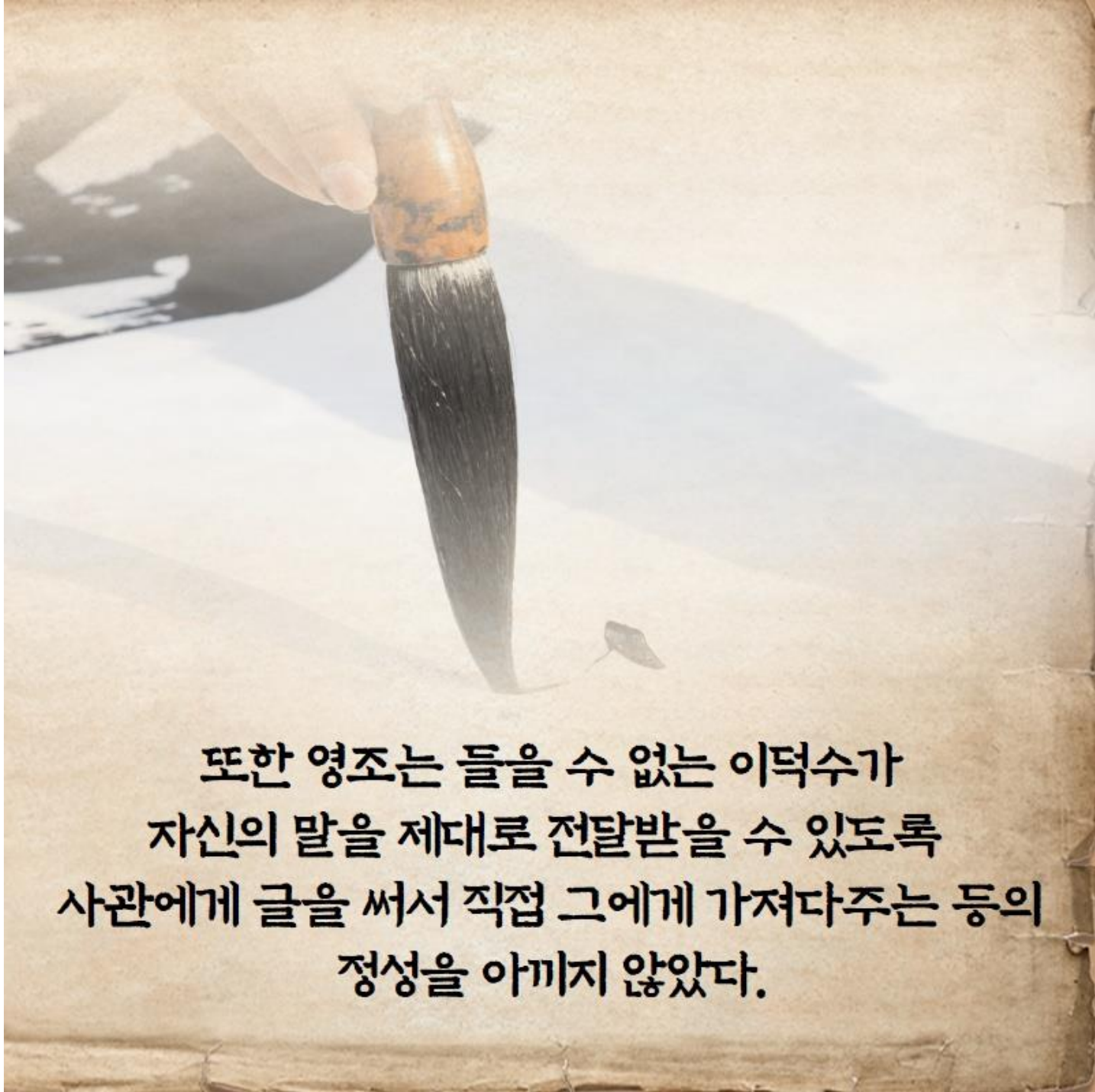
英宗大王實錄

卷之一
自甲辰八月二十五日
至甲辰十月三十日

"중국어에 대해서는
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.
어찌 이것이 병폐가 될 것인가?"

『영조실록』 38권, 영조 10년(1734) 7월 21일조.





또한 영조는 들을 수 없는 이덕수가
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
사관에게 글을 써서 직접 그에게 가져다주는 등의
정성을 아끼지 않았다.



그 결과, 이덕수는
학문 관련 최고 직위를 모두 겸직하는
학자로서 명예로운 자리인 대제학에까지 오른다.



이것은 모두 그를 오직 능력으로만 바라본
영조라는 조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.



장애에 대한 편견(偏見)과 차별(差別)을
넘어설 수 있었던 조선시대
그 결과, 역사를 빛낸 수많은 이름들.



우리는 지금,
우리의 역사를 새로 쓸 수많은 이름을
편견이라는 소리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을까?